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찬송가 593장] **다 같이**

- 1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 2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 3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 4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 5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 6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후렴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교 독 문 [30. 시편 67편] **다 같이**

사회 :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가족 :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사회 :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가족 :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회 :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가족 :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 임이니이다

사회 :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가족 :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회 :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가족 :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기 도 **가 족 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의 은총 아래 살게 하시고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곁을 지키시며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의 심령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00편] **사 회 자**

-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선포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축복의 명절] **사 회 자**

(겔면의 설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 송 [찬송가 557장] **다 같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축복의 명절(시100:1-5)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촉구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시는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감사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관계와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4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에도 귀 기울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누는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셋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히 대대에 이릅니다.

5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성실하심)은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추석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수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해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화목을 누리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